

#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바꿔주는 45가지 생활명품

#### 윤광준의 新 생활명품

윤광준 지음

일단, 이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름신' 의 강림을 각오해 야한다. 어쩌면 신 용카드를 옆에 두 고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책에 등장



하는 '물건'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란 어렵다. 준비됐다면, 책을 펼치시라.

사진가이자 오디오 평론가, 생활명품 전문가로 글과 사진, 여행, 음악을 넘나 드는 전방위 문화인 윤광준이 생활명품 과 관련한 세번째 책 '윤광준의 新 생활 명품'을 펴냈다. 이번 책에서는 우리 일 상과 밀접한 45가지 '생활명품'을 소개

'생활명품'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말하는 그가 규정하는 생활명품은 '가치 있게 잘 만들어진 물건'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물건을 만들어낸 장인들은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았고 더디고 답답 한 세월을 이겨낸 인물들이다. '물건은 곧 인간 정신의 표현'이라는 믿음을 갖

명품 선정 원칙은 이렇다. 써보지 않 는 물건은 다루지 않는다. '직접 만져보 고 써보며 시간을 묻혀야만 알게되는 비 밀'이 있기 때문이다. 길게는 20년 짧게 는 두달, 세월로 검증했거나 새로운 기 능과 아름다움의 매력이 다가온 경우 선

정했다. 수많은 로비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에 는 좀 더 애정을 더했다. 책은 또 독일, 중국, 일본, 장흥, 부산 등을 '발로 뛴 기 록'이기도 하다. 제품 소개와 더불어 윤 광준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글쓰기가 어 우러져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렵다.

필기구 마니아로 가장 먼저 읽은 건 독일 연필 '파버 카스텔'이다. 동화에나 나올법한 뉘른베르크의 아름다운 성에 서 만들어지는 파버 카스텔의 역사는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왁스를 넣지 않은 흑연만의 필기감이 고유한 연 필의 맛이라는 확신을 갖고 만들기 시작 한 '모델 9000'의 녹색과 말을 탄 기사는 파버카스텔의 시그니쳐다.

저자가 만났던 백발 노인 파버 회장은 '파버 카스텔은 창조의 도구'라며 빈센 트 반 고흐와 '양철북'의 귄터 그라스가 애호가였다고 전한다. 필자는 '인간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창조 행위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철학을 느낄 수 있 었다고 말한다.

친구인 장흥 출신 한국화가 김선두를 통해 알게 된 '장흥 무산김'은 '기억 속 의 김 맛에 근접한 풍미와 향'을 느끼게 해준 명품이다. 할머니가 솔개의 날갯죽 지에 들기름을 묻혀 김에 바르고 그걸, 솥뚜껑에 구운 걸 먹고 자란 그다. 김 맛 을 잊지 못해 다시 장흥을 방문한 그는 '지난한' 생산 공정을 살피고 '염산을 쓰 지 않는 양식법'을 실천한 장흥 무산김 에 반한다.

최대 길이 58cm로 4단 길이 조절이 가 능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시원하게 긁어주는 '요괴손 등긁개'는 외로운 마



장흥 무산김

음까지도 시원하게 긁어줄지 모를 명품

1947년 피부과 치료제를 생산하기 시 작한 '세타필', 혹사당한 발에 평화를 선 사한 '페닥 깔창', 든든한 노트북 가방 '투미',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향균 탈취제 런드레스', 콧수염 가위 '카위', 기본에 충실한 '밀레 청소기', 모든 음원 을 재생하는 '칵테일 오디오' 등도 눈길 을 끈다.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한 지인은 이미 카 드결제를 하고 말았다. 1947년부터 우산 과 햇빛 가리개 만을 만들어온 오스트리 아 '도플러'사의 우산이다. 기존 우산에

STANLEY

스탠리 보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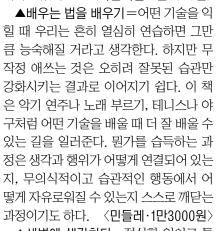
불만이 많았던 그에게 철저한 방수 기능, 세찬 바람도 견뎌내고 버튼 한번 누르면 '좌르르' 접히는 민첩성까지 갖고 있는

도플러 우산은 유혹의 대상이었다. 또 하나 눈독들이고 있는 명품은 클릭 한 번으로 플러그가 빠지는 멀티탭 '클 릭 탭'이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발 로' 전원 플러그를 뺄 수 있다는 멀티탭 에 어찌 마음을 주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 책을 읽은 이들이라면 '윤 광준의 생활명품'(2008)을 다시 뒤적이 며 예전에 소개된 명품을 다시 탐색하게 될 것이다. 〈오픈하우스·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기득권층=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막 대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파헤친 책. 저자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기 득권층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다. 기득권 층이 하나의 정치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책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수 권력자들의 발생과정과 그들이 끼치는 정 치경제적 폐해를 새로운 시각으로 날카롭 게 진단하며, 이에 맞설 민주적 대안을 제 시하고 있다. 〈북인더갭·1만9500원〉



▲새벽에 생각하다=절실한 언어로 특 유의 서정을 노래하며 문단과 독자에게 사 랑을 받아온 시인 천양희의 시집. 올해로 등단 52년을 맞은 시인은 현실적 절박성에 서 비롯한 고통과 외로움이라는 화두를 절제된 시적 언어로 적어내며 고귀한 삶을 향한 간곡한 열망을 구체화해왔다. 시집 에는 사물들이 서로 겯고틀며 함께 서는 자연의 이치를 발견·체화하며 이 동력으 로 절망을 통과해 시로 나아가고자 노력해 온 시인의 힘찬 여정을 담은 61편이 묶였 〈문학과지성사·8000원〉

▲엘리트 마인드=세계적 반열에 오른



15







인재들이 전하는 압도적 성공의 조건. 독 보적 성공을 거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특 별한 정신의 힘을 '엘리트 마인드'라 명명 하고 마인드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성공 의 원리를 해부한다. 왜 지금 '엘리트 마인 드'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년간의 심리 상 담과 리더십 코칭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 게 제시하고 있다.

〈비즈페이퍼·1만5000원〉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도다=방황 하는 청춘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다빙의 초특급 웃음 처방전. 작가이자 가수인 다 빙은 거리에서 노래하며 중국 대륙을 떠 돌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 아 2014년부터 매년 한 권씩 발표했고 작 품들은 '강호삼부작'이라는 애칭으로 불 리며 수백만 권이 팔려나갔다. 이번 책은 다빙이 2015년 발표한 소설집으로 '당신 에게 고양이를 선물할게요'와 한 쌍을 이 루는 작품이다.

〈라이팅하우스·1만3000원〉

### 미생물 연구에 일생 바친 13명의 위대한 영웅들

### 미생물 사냥꾼

폴 드 크루이프 지음

"한가지 세균, 오직 한 종류의 세균이 하나의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 모든 질병 에는 그것만의 특정한 미생물이 있다."

독일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로베르 트 코흐(1843~1910)의 말이다. 그는 탄 저균(1877년)을 비롯해 결핵균(1882년), 콜레라균(1885년) 등을 차례로 발견해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정 미생물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인류



를 치명적인 질 병의 위협으로부

터 구했다. '미생물 사냥꾼' 은 안톤 반 레벤 후크부터 루이 파스퇴르, 로베

르트 코흐, 일리야 메치니코프, 파울 에 를리히 등 미생물 연구에 일생을 바친 13명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소개한다. 네 덜란드계 미국인 폴 드 크루이프가 1926 년 쓴 이 책은 90년 동안 18개국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이다.

저자는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 등 각지에서 연구에 발벗고 나선 생생하게 묘사한다. 과학자 13명의 일대 기를 살피면서 전체적으로는 미생물학 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이다.

네덜란드 포목상 안톤 반 레벤후크 (1632~1723)부터 미생물 연구 이야기 가 시작된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그는 손수 만든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했다. 시대를 앞서간 그의 연구는 '미생물'이 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그의 뒤를

24시간 OPEN!!

이은 라자로 스팔란차니와 루이 파스퇴 르, 로베르트 코흐의 연구를 거쳐 인류를 괴롭혀오던 전염병의 정체가 하나씩 밝 혀졌다. 또한 월터 리드는 군인을 대상으 로 모기에게서 전염되는 '황열'(黃熱)을, 테오발드 스미스는 '텍사스열'을, 파울 에를리히는 매독을 연구했다.

시대를 앞서간 미생물학자들 덕분에 인류는 백신주사를 맞고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파스퇴르는 "인간의 힘 으로 기생체에 의한 질환을 이 지구상에 서 없애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새 로운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13명 과학자의 뒤 를 잇는 새로운 '미생물 사냥꾼'들이 탄 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반니·2만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친할머니 외할머니=친할머니와 외 할머니,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 가족 간 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정 반대되는 성격 의 할머니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바로 손녀 사랑이다.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자식 사랑을 한다. 그러던 할머니가 아파 병원에 입원한 장면을 통해 사랑하 는 사람과의 이별을 이야기한다.

〈단비어린이 ·1만2000원〉

▲재능도둑과 수상한 캠프=청소년 소 설 작가 리사 그래프가 이번에는 초능력 아 이들과 그 재능을 사서 능력자 행세를 하 는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와 놀라운 반전을 지닌 이야기로 돌아왔다. 아름다운 호숫가 캠프에 모인 백여명의 초능력 아이들과 캠 프 감독 조는 각각의 입장만 고집하며 갈등 을 더해간다. 〈씨드북·1만2000원〉

▲톨스토이의 아홉 가지 단점=1910년 10월 28일 가출해 11월 7일 새벽, 톨스토 이가 숨을 거두기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





이야기다. 작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허당 코믹 탐정 셜로홉스키와 사랑스러운 꼬마 마부 필카라는 상상의 인물을 덧붙여 톨스 토이의 문학과 사상, 톨스토이가 진짜 꿈 꾸던 세상에 대해 풀어낸다.

〈만만한책방·1만2000원〉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다채로운 색 감과 반복되는 말놀이의 매력을 선사하는 그림책. 네 명의 친구들이 늦은 밤 숲 속을 살금살금 움직인다. 한 마리 새를 잡기 위 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그 고요하고 숨 막히는 분위기를 깨는 건 제일 뒤에 서 있던 키가 가장 작은 친구의 한마디. "안 녕, 짹짹아?" 〈비룡소·1만2000원〉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m²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m²) 및 공실(129m²)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참숯가마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